

코로나 불황에도 '레드오션' 창업 줄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황이 이어지면서 카페와 식당 등 자영업계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경기불황에 결국 폐업을 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덩달아 일자리 역시 줄고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생계형 창업에 눈을 돌리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반이 열악한 광주에서 '레드 오션'인 카페와 음식점 등 요식업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업계간 과다경쟁과 그에 따른 부채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18일 국제통계의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기준 광주지역 100대 생활업종 전체 사업자는 7만6072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892개보다 5.81% 증가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5월(6만9320개)에 비해서는 9.74%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대표 창업 업종인 카페 등 커피음료점은 지난해 사업자가 1809개에서 올해 2130개로 17.74% 증가했고, 창업 인기 종목인 편의점도 1056개에서 1149개로 8.81% 늘었다.

이밖에 한식전문점은 1만134개에서 1만492개로 3.53% 증가했으며, 일식전문점은 256개에서 280개로 9.38%, 분식점은 1538개에서 1566개로 1.82% 늘었다. 또 패스트푸드점은 1136개에서 1300개로 14.44% 늘었고, 제과점도 498개에서 537개로 7.8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손님과 매출이 줄며 카페와 식당 등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해당 업종의 창업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실제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서 새롭게 문을 연 카페는 247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3곳에 비해 27.98% 늘었다. 덩달아 같은 기간 폐업 신고 건수 역시 101건에서 136건으로 34.65%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음식점도

1~7월 광주 카페창업 247건... 전년동기 대비 28% 늘어 음식점 등 요식업 창업·폐업 반복 ...과다경쟁에 부작용

올해 7월까지 996곳이 새롭게 문을 연 반면, 892곳은 문을 닫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단축 등 자영업자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면서 버티다 못해 폐업을 하지만, 누군가는 또 위험을 감수

한 채 새롭게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결국 빚더미에 앉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광주지역 산업대출금은 3조1410억원

에 달했다. 도·소매업 신규대출금은 5354억원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271억원에 달했다.

지역경제계 한 관계자는 "광주는 산업·경제시설 기반·인프라가 열악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고용절벽이 심화되면서 은퇴세대 뿐 아니라 청년들까지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 창업에 몰리고 있다"며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과 창업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여성·청년농업인 바리스타 교육

농협 전남지역본부(분부장 박서홍·오른쪽 두번째)와 순천농협은 이달 6일부터 8회에 걸쳐 여성·청년농업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벌였다. 모든 수강생은 커피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따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농협 제공>

금호타이어 노조 곡성공장도 점거

임단협 진통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공장에 이어 곡성공장에서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18일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곡성공장 노조 간부가 크릴륨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앞서 광주공장에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크릴륨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크릴륨은 타이어 생산 공정의 초기 단계인 압연 공정을 하는 곳으로, 가동되지 못하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공장도 이날 오후엔 재고가 소진돼 야간부터 공정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노조의 수정 요구안은 매우 소박하며 경영 상황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며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우리사주는 사측이 약속대로 무상으로 출연하면 우리사주 조합이 곧바로 상환하고 사측이 담보 해지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또 "일시금(격려금)은 대외적인 경영악화와 재정 부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올 상반기 118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점 등을 고려하면 부풀려진 얘기"라며 "사측이 결단하지 못하면 잠정 합의에 담긴 광주공장 이전 합의는 전면 보류되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라인 가동도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5일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동결과 국내공장 고용안정 및 미래비전, 광주공장 이전, 우리사주 분배(사측 250억원 출연) 등을 잠정 합의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51.6%가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수정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열골

"지역경제 회복 위해 관세행정 역량 집중"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



그는 또 "격의 없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력이 넘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담양 출신인 정 본부세관장은 서울대 해양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집행국장,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호남권 2분기 살림살이 '양호'

광공업생산 13.4% 증가... 일부 건설 경기·소비판매 부진

올해 2분기 호남지역의 경제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역의 건설 경기나 소비 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인구 유출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분기 호남지역 경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화학제품, 1차 금속 등의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13.4% 늘었다.

광주는 29.4%, 전남 9.1%, 전북 12.2% 등 모두 증가했다.

수출액은 162억 달러로 철강판 등의 호조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무려 71% 급증했다. 광주가 49.3%, 전남 84.4%, 전북은 5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62.1%)은 60대와 40대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전북(2.2%)과 전남(1.3%)은 1~2%대 올랐으나 광주는 0.1% 상승에 그쳤다. 취업자 수는 270만9000명으로 사업과 개인·공공서비스 등에서 5만6000명 증가했다.

건설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주액은 4조6047억으로 토목공사 수주가 늘어 52.5% 늘었다. 전남과 전북은 각 121.5%와 115.1%로 급등했으나 광주는 오히려 44.8% 줄었다.

호남권 인구는 전임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아 2분기에만 순수하게 빠져나간 인구만 1827명에 달했다.

50대(860명)와 60대(740명), 40대(461명) 등은 귀촌 등으로 순유입이 많았으나 취업과 교육 등으로 20대(-3548명)와 10대(-653명)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훨씬 많았다.

소비 동향을 알 수 있는 소매판매액 증감률은 광주와 전북에서 각 4.2%와 5.1%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전남만 보합을 유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3158.93 (+15.84) |
| ↑ 코스닥 | 1021.08 (+10.03) |
| ↓ 금리(국고채 3년) | 1.389 (-0.013) |
| ↓ 환율(USD) | 1168.00 (-8.30) |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건넬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